

한·중·일 고대 원지 비교 분석을 통한 안압지 조영계획의 연구

박경자* · 양병이**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환경조경정보학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A Study on Design and Construction of Anap Pond with a Comparative Study of Ancient Palace Ponds in Korea, China and Japan

Park, Kyung-Ja* · Yang, Byoung-E**

*Graduate School of Urban Studies, Hanyang University

**Grad.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Anap pond with a comparative study of ancient palace ponds in Korea, China and Japan. Anap pond was excavated in 1975-6 and is the oldest original pond to be found among Korean garden sites.

Anap pond was made just before Shilla drove out Tang, after Shilla ruined Paekjae and Koguryo with the Tang army. This was a time Shilla enjoyed a multi-cultural situation due to interaction with Paekjae and Koguryo refugees, as well as information provided by the ambassadors sent to Tang who were well acquainted with Tang culture.

Anap pond shows the influence of not only the indigenous mountain-god myth, but also the theoretical background common among Korea, China and Japan. But it also depicts the special form of space imbued with the exquisite aesthetic taste of Shilla people, which started with Anap pond hardened in Gamen temple, and which bloomed in Sukgulam. Scenery structure analysis gives a supposition of the center building on the western coastland, and sequential analysis gives the feeling of being at sea, analysed by root square shape analysis, equal ratio square shape and golden section, so we can see the planned space organization by speculated planning. Thus, Anap pond is a garden of Shilla in which the cultural exchange has been inculturated and made our own, and the special aesthetic taste embodied.

Key Words : Mountain-god Myth, Scenery Structure Analysis, Root Square Shape Analysis, Equal Ratio Square Shape, Golden Section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통일신라시대 안압지(雁鴨池)는 1975-1976년의 발굴에 의하여 원지(苑池)의 유구 뿐만 아니라 출토된 수많은 유물을 통하여 안압지 조성의 전모를 규명해 볼 수 있는 한국에 현존하는 최고의 원지 유적이다. 안압지의 조영에는 당시 통일에 합세했던 당(唐)의 영향 즉, 중국의 오랜 문화적 전통과 신라의 삼국통일 후 귀화한 백제, 고구려 유민의 영향이 크게 가해졌을 것이고 일본에 대한 영향도 찾아볼 수 있으며, 여기에 신라 고유의 문화적 능력이 더해져서 독특한 안압지의 원지양식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미술이나 문화의 발전에 있어서 다른 국가나 민족 또는 지역과의 교섭은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다(안휘준, 1996: 11). 이와 같은 현상은 극동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조경양식에 있어서 이상과 같은 극동 미술 즉, 동북아 미술은 동일한 미술권으로서 원지에 있어서도 동북아 원지양식이 형성된다.

통일 미술권간의 비교연구에 있어서 교섭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미술이나 문화 혹은 역사에서 얘기하는 '교섭'이라는 말은 본래 국가 간, 민족 간, 지역 간에 이루어지는 대등한 위치에서의 교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건전한 의미에서의 영향관계는 영향을 받은 쪽에서 그것을 받아서 모방하는 수준에서 그쳤는지, 아니면 그것을 토대로 문화를 자기화하거나 더 나아가 보다 높은 수준이나 나은 방향으로 발전을 시켰느냐의 여부에 판단의 기준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안휘준, 1996: 11).

동북아의 세 국가 즉 한국, 중국, 일본의 고대는 문화 발전의 초기 시기이었으므로 자기 문화의 토대가 약하기 때문에 서로간의 문화교섭에 있어서 그 이후 시기보다도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받게된다. 이 시기에 있어서 조경분야 중에서 특히 궁궐의 못인 원지는 못이 고대로부터 조경공간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어왔다는 관점과 사서에 남아있는 기록을 어느 정도 찾아 볼 수 있고 발굴되었거나 발굴 중인 원지 유적이 상당수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대 원지의 비교연구가 중요한 가치를 지닐 수 있으며 또한 비교연구가 가능하여, 교섭에 의

한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의 원지의 공통점 즉 보편성과 삼국 특유의 특수성을 도출해낼 수 있다.

따라서, 안압지를 동북아 삼국인 한·중·일 고대 원지와 비교연구 함으로써 교섭에 의한 공통된 양식의 보편성과 문화의 영향이 자기화되어 표현되고 신라인의 독특한 미의식이 가해진 안압지의 특성을 규명해 보려고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 범위 및 대상

연구 범위에서 시간적 범위는 안압지의 경우 통일신라시대가 해당되며, 비교 대상인 한, 중, 일 고대 원지의 경우 문헌에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유구의 발굴이 실시된 시기부터 그 이후로 설정하여, 중국의 경우 진, 한, 수, 당(秦, 漢, 隋, 唐)시대까지, 일본의 경우 비조(飛鳥), 나라(奈良), 평안 전기 이전까지, 한국의 경우 고구려, 백제, 발해, 통일신라시대까지를 그 시간적 범위"로 정한다.

공간적 범위는 특히 동양의 경우 수공간이 조경공간의 중심을 형성하여 왔다는 관점에서 문헌에 기록이 있고 유구가 발굴된 고대 동북아 삼국인 한·중·일의 궁궐의 못인 원지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3. 연구 방법 및 과정

연구 방법은 연구대상이 고대의 원지라는 특수 성격을 지녔으므로 발굴된 유적과 발굴된 유적의 보고서 및 사료에 바탕을 둔다. 안압지의 경우 발굴되어 복원된 유적과 발굴보고서를 조사할 수 있고, 남아있는 문헌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참고할 수 있으며, 중국의 원지의 경우 발굴된 유적이 그리 많지않아 대부분 사료와 얼마 안되는 관련연구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일본의 경우 상당수의 고대 원지가 발굴되었고 발굴 중이므로 발굴 현장을 답사하거나 발굴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었다. 한국의 고구려의 경우는 현장 답사가 어렵지만 관련 발굴 보고서를 입수할 수 있었고, 백제, 신라의 경우는 발굴 되었거나 발굴 중단된 원지가 보존되어 있어서 현장확인 이 가능하며 관련 발굴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었다. 또한 한·중·일 고대 원지에 관한 관련 문헌 연구를

병행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인 중국을 1997년 3차례, 1999년 1차례 모두 4차례 방문하여 현장확인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으며 일본에는 1999년 한 차례 방문으로 현장확인 및 관련자료수집 및 관련학자들과 수차례의 서신왕래에 의해 자료수집과 발굴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국내의 경우는 수시로 현장방문과 발굴보고서 입수가 가능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한국, 중국, 일본의 고대 원지에 관한 자료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자료는 자료분석 후 연구내용으로 한·중·일 고대 원지의 배경과 원지 입지와 기능, 원지 조영의 연구가 있고 또한 안압지 조영으로 배경, 입지, 공간의 구성, 조영 요소의 연구가 있으며, 한·중·일 고대 원지 비교 분석으로서 한·중·일의 고대 원지 조영 비교 및 영향관계와 안압지 조영의 특성의 연구 내용 후 결론을 도출한다.

II. 한·중·일 고대 원지 조영

1. 배경

1) 시대적 배경

진시황(秦始皇)과 한무제(漢武帝), 당태종(唐太宗) 시대에는 정치적 업적 뿐 아니라 문화방면에서도 탁월한 업적을 남겼으며, 이 때에는 많은 궁궐과 원이 조성되었다. 일본의 비조시대에 이미 견수사(遣隋使)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나라시대에 견당사(遣唐使) 등으로 중국의 문물과 접촉했고(동경대 교양학부 일본사연구실 편, 1998: 56-76), 이 때에 중국의 궁궐 등이 도입되었을 것이다. 또한 이미 비조시대에 한국의 조원술이 전해진 기록이 전해진다(上田正昭, 1990: 118).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오래 전부터 잦은 교류가 있어왔다. 또한 일본과도 오래 전부터 많은 접촉, 충돌과 교류가 있어왔다. 이러한 동북아 삼국에 있어서 문화적 교섭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것은 왕경제라든가 궁궐 또한 궁궐에 있어서 원지의 조성에서도 상호영향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2) 사상적 배경

진시황(秦始皇)은 상림원(上林苑)에 못을 파고 봉래도(蓬萊島)를 축조했으며 이것은 한(漢)시대에 상림원

(上林苑)의 건장궁(建章宮)의 태액지(太液池)에 봉래(蓬萊), 방장(方丈), 영주(瀛洲)의 삼신산(三神山)을 조성하여 완전한 형태의 삼신산을 갖춘 이후 중국 황가 원림 원지 조성의 전통으로 후대에 전해졌다(周維權, 1993: 33). 일본의 경우 비조시대에 원지에 삼신산을 조성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龜田博, 1992: 21; 上田正昭, 1990: 121-122) 나라시대 이후 원지 조성의 전통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경우 백제의 궁남지(宮南池)에 방장선산(方丈仙山)의 기록(삼국사기 백제본기)이 처음 나오며, 통일신라의 안압지에서 발굴결과 세계의 섬이 밝혀져서 이 역시 삼신산으로 유추할 수 있다. 용강동 원지에서도 발굴결과 현재까지 2개의 섬이 드러났고(이백규, 1999; 하진호와 김재철, 1999) 발해의 어화원지(御花園池)에서도 2개의 섬이 조사되었고(김경표, 1996) 이것 역시 삼신산으로 유추된다. 이후 한국 원지 조성의 전통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원지에 삼신산을 조성하는 사상적 배경은 도교의 신선사상이다. 불로장생하는 신선이 살고 있다는 동해의 삼신산은 불로장생을 회구하는 제왕의 이상향이었고, 제왕은 궁궐에 못을 파고 삼신산을 조성함으로써 불로장생을 회구하였던 것이다.

2. 한·중·일의 고대 원지 조영

이러한 원지는 입지에 있어서 원에 부속하며 원은 중국의 당의 금원(禁苑), 일본의 송림원(松林苑), 신라의 북궁원(北宮園)처럼 북쪽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북궁후정(北宮後庭)의 특색(박한제, 1993: 3)을 나타내고 있으나, 신라의 경우 정궁으로 추정되는 월성(月城)은 왕경의 남쪽에 입지하고 있다. 원지의 입지의 경우 당의 대명궁 태액지(大明宮 太液池), 일본 나라의 동원원지(東院園池)와 신라의 안압지, 발해의 어화원지에서처럼 공통적으로 정궁의 동쪽에 조성되며 이것은 중국의 당 대명궁이 금원의 동쪽에 입지했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한·중·일의 고대 원지는 기록에 의하면 기능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궁중의 유연소(遊宴所)로서 이용되었다. 원지 공간 조영에 관한 부분은 IV장 1절 한·중·일의 고대 원지 조영 비교 및 영향관계에서 함께 다루기로 한다.

III. 안압지 조영

1. 배경

안압지가 조영된 시기에 관한 현재까지 조사된 이른 기록은 문무왕(文武王) 14년(674)이고 안압지 기록과 출토된 명문(銘文)에 의하면 문무왕 19년 이전에 조영된 것이 확실하다.

안압지의 원래 명칭은 월지(月池)로 볼 수 있고(한병삼, 1982: 40), 안압지란 명칭은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확실히 나타나고 있어서 늦어도 15세기 이전에 붙여진 것으로 추측된다(김동현, 1976: 36).

안압지 조영에는 발굴에 의해 못 속에 3개의 섬이 확실히 드러나 신라의 실성이사금(實聖尼師今)과 고구려의 보장왕(寶藏王)대에 나오는 한국의 자생 신선사상이나 제왕의 불로장생을 희구하는 도교의 신선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출토 유물의 명문에 의해서 조영 당시 당과의 관계나 왜구의 침입에 대한 호국신앙으로서 안압지 자체를 용이 사는 바다로 상징했던 용신앙과 산신신앙과 신라왕권을 중심으로 통일 의지가 내포된 천신신앙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박경자, 1998).

안압지는 동궁의 원지이며 기록과 출토유물에 의하면 호국을 위해서 용왕제를 지내던 용신앙과 산신신앙의 기능과 궁중의 유연소 역할을 했다.

2. 입지와 기능

월성은 낭산(狼山)의 서쪽, 남산의 북쪽에 위치하며 월성의 동쪽에 동궁이 있었고 임해전지(臨海殿址)와 안압지의 입지와도 관련이 있다.

임해전(臨海殿)은 궁궐의 유연소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보이며 삼국사기에는 임해전에서 연희한 기록들이 있다(삼국사기 신라본기 효소왕(孝昭王) 6년 9월: 혜공왕(惠恭王) 5년 3월: 헌안왕(憲安王) 4년 9월: 헌강왕(憲康王) 7년 3월: 경순왕(敬順王) 5년 2월)

3. 공간의 구성

발굴결과에 의하면 안압지는 동서 180m, 남북 200m의 방형 구역 내에 조성되었다. 못 남안과 서안은 직선으로 처리되었고 북안과 동안은 복잡한 곡선으로 처리되었다. 못 서안에는 5개 처의 건물지(建物址)가 못 쪽으로 돌출되어 있고, 못 서쪽에는 임해전지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있었고 건물지들은 회랑으로 연결되었고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고 배수구에는 배수의 기능과 수생식물을 식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석조가 있다. 동안에는 기록에 의하면 무산십이봉(巫山十二峯)(동국여지승람, 동경잡기)이 있다. 남안에는 회랑과 가축사로 추정되는 건물지와 원장지(垣牆址)가 있다. 못 속에는 3섬이 있는데 가장 남쪽에 대도, 중앙에 소도, 북쪽에 중도가 있다. 남동쪽에 6단계의 입수구가 있고 북서쪽에 출수구가 발굴되었다(김동현, 1978: 50-64).

안압지는 공간구성 요소인 공간의 시퀀스에 의해 분석된다. 즉 제 1건물지에서부터 차례로 이동했을 때, 동쪽 호안과 3섬의 호안이 못 뒤쪽으로 무한히 연속되는 연속적인 시계(sequential view)를 형성하여, 임해전의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못 자체를 바다로 상징했음을 실감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또 공간의 경관구조분석에 의해서 서쪽 호안의 건물지 중 임해전지의 성격에 가장 근접한 건물지의 위치로서 제3건물지를 추정할 수 있으며(박경자, 2001: 14-21), 또한 공간의 스케일과 비율인 $\sqrt{\quad}$ 구형과 동일비율 구형(矩形)에 의해 분석되며(그림 2 참조), 또 동서양의 가장 아름다운 비율인 황금비로 분할된다(그림 3 참조). 이와 같이 안압지는 면밀한 계획에 의해서 공간구성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 발달한 삼신산 원지가 안압지에서는 못 속의 단순한 세 섬의 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못 전체 수류의 중심이 되고, 전체적인 비례의 중심이 되며,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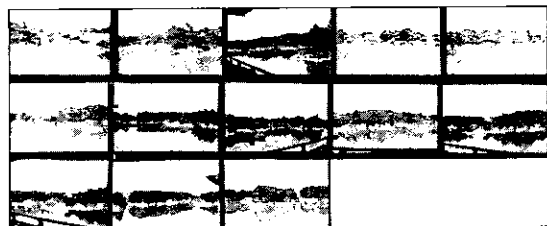


그림 1. 연속적인 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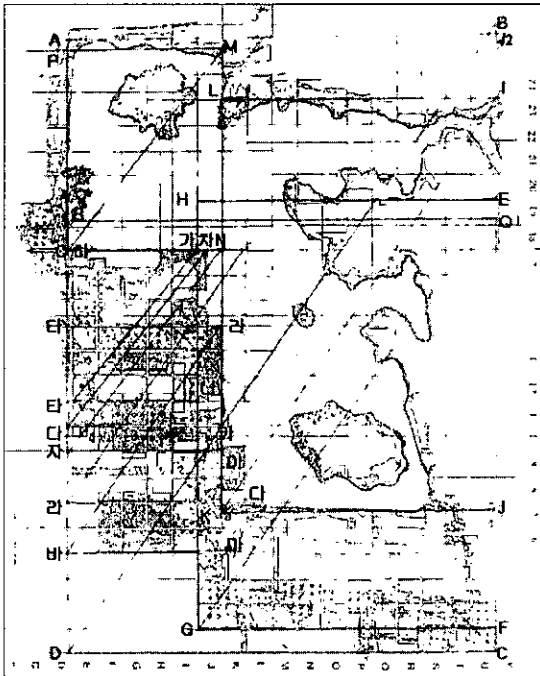


그림 2. 구형과 비율

관구조의 조화를 이루고 또한 연속적인 시계(sequential view)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림 2에서 건물지를 포함한 못 전체 공간은 정방형 QCDR의 대각선 CR을 반지름으로 하여 원을 그릴 경우 B점에서 만난다. 선분 CQ와 RQ를 1로 했을 때 선분 BC는 $\sqrt{2}$ 이다. 따라서 못 전체의 구형 ABCD는 $\sqrt{2}$ 구형으로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에서 못 전체 공간을 구형 ABCD, EFGH, IJKL, MNOP로 구획하면 장변과 단변의 비가 각각 1.4가 되고, 건물지를 구형 가다라O, 라마바사, N아자O, 차카타O, 하가'나'다'로 구획하면 장변과 단변의 비가 각각 1.4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안압지의 못 전체의 공간 계획에는 $\sqrt{2}$ 구형과 동일 비율의 구형으로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대로부터 많은 주의를 끌어온 하나의 비율이 있다. 그것이 이른바 황금분할이다. 하나의 선분을 나누어서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한 비가 다른 쪽이 전체에 대한 비와 같게 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부분이 될 때 황금분할로 양분되었다고 하며 그 정수치(定數値)는 1.618이다.

안압지는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황금분할로 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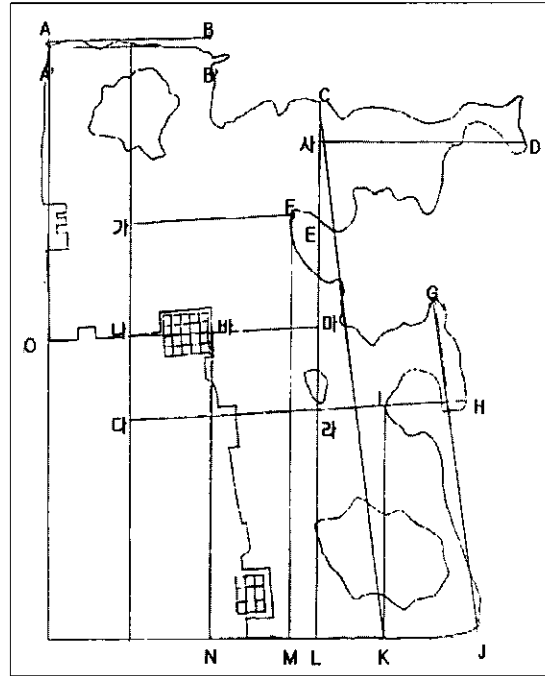


그림 3. 황금분할

한다. 즉 중앙의 소도의 중심을 통과하는 남북방향의 선분을 중심축으로 잡고 이에 평행하는 선분과 수직되는 선분을 각 중요한 지점에서 그었을 때 각각은 황금분할의 정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즉, 그림 3에 의하면 $AB = A'B'$, $O나 = 나바$, $라H = LJ$, $\frac{O다}{O바} \approx 1.61$, $\frac{사D}{라H} \approx 1.61$, $GJ // CK$, $\frac{다I}{가F} \approx 1.61$, $\frac{CK}{GJ} \approx 1.61$, $\frac{사D}{LJ} \approx 1.61$, $\frac{NJ}{AB} \approx 1.61$, $\frac{FM}{IK} \approx 1.61$, $\frac{NJ}{LJ} \approx 1.61$, 의 황금분할의 정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조형 요소

안압지의 조경수목에 대해서는 화초를 심었다는 삼국사기 기록이 있고 관련문헌을 통하여 식생을 조사할 수 있고, 화분분석에 의해 주변 식생을 추정(박경자, 1979)할 수 있다. 또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기이한 금수가 서식하고 있었고 발굴결과 동물 뼈가 출토되었다.

호안의 석축은 건물지가 있는 서안과 동안, 북안, 남

안의 석축 수법이 달랐다. 서안은 상, 하단의 2단으로 되어 있고 하단의 높이와 석축방법은 동안, 남안, 북안과 동일했다. 이러한 석축은 고구려 유민에 의한 발달된 고구려 석축술의 영향으로 보인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의미는 불분명하나, 전 호안 석축 하부에 직경 50cm 내외의 둥근 넷들을 80-120cm 간격으로 호안 석축에 기대어 놓은 것이다.

동안에 조성된 무산십이봉(巫山十二峯)은 축석위산(築石爲山)의 기록으로 보아 이것은 석가산으로서 중국 원지의 호안 주변에 조성한 축석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입수구는 6단계로 구성되었는데, 2단 석조에는 주연부(周緣部)에 용이 조각된 흔적이 있어 비조의 구형석(龜形石)과 유사하게 고대 사령신앙(4靈信仰)의 신선사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못 바닥은 방수를 위해 진흙과 강회 다짐을 하였고 정자형(井字形)의 나무틀이 발견되어 나라 평성경좌경삼조이방 원지(奈良 平城京左京三條二坊 園池)의 나무틀(平城京左京三條二坊六坪 發掘報告書, 1986)과 같이 수생식물을 심었던 곳이며, 식재지역을 제한시켜 못을 더 크게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IV. 안압지와 한·중·일 고대 원지의 비교 분석

1. 한·중·일의 고대 원지 조영 비교 및 영향관계

규모, 형상에 있어서 중국의 진, 한, 수, 당시대의 원지는 그 규모를 정확히 밝힐 수 없지만 역사지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방대했으리라 추정되며 형상은 자연 곡선형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 비조시대의 기하학적 형태의 지(池)는 나라시대에 이르러 방형의 변형이나 곡지로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고구려, 백제의 기하학적인 지(池)의 형상은 방지(方池)로 대표되며, 통일신라의 안압지는 방형 구역 내에서 직선과 곡선으로 나타나며 발해의 어화원 지에서 부정형 방형이 나타난다. 원지의 형상을 한·중·일 삼국간에 비교해 보면 고구려, 백제의 기하학적인 형태의 못은 방지가 주가 되며 백제의 관북리유적(官北里遺蹟)과 정림사지(定林寺池), 궁남지(宮南池), 비조의 도장유적(島庄遺蹟)의

방지와 석신유적(石神遺蹟), 비조지유적(飛鳥池遺蹟) 등에서 볼 수 있는 이 시기의 특유한 지(池)의 형상이라 할 수 있고, 그 외 부정원형, 부정타원형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압지의 방형 구역 내에서 직선과 곡선으로 나타나는 형상은 동원정원(東院庭園)에서도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안압지와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어화원 지(御花園池)에서는 부정형 방지가 보이고, 이와 다른 형태로 중국 수의 곡지(曲池), 고구려의 안학궁지(安鶴宮址) 곡지가 보이고 신라의 포석정(鮑石亭)은 곡수유상(曲水流觴)이며 일본의 소간전궁(小墾田宮), 동원원지(東院園池) 남에 곡수의 유구가 있고 평성경좌경삼조이방 원지(平城京左京三條二坊 園池)는 곡지이다.

중국의 진의 상림원 못에는 봉래도가 있으며 한의 상림원 건장궁 북쪽 태액지에는 봉래, 방장, 영주의 삼도가 있다. 수 서원(西苑) 호수에는 봉래, 방장, 영주의 삼도가 있고 당 금원 대명궁의 태액지에는 봉래산이 있다. 이러한 원지에 조성된 삼도, 일도의 일지삼산(一池三山)은 삼신산이다(周維權, 1999: 33).

일본의 도장유적(島庄遺蹟)의 중도는 삼신산의 하나라고 설명되고 있고(上田正昭, 1990: 121-122) 비조경적원지유구(飛鳥京跡苑池遺構)의 도상석적(島狀石積)과 호안에서 이어져 나온 섬은 삼신산으로 설명되며(龜田博, 1999: 21) 나라의 동원정원원지(東院庭園園池)에는 중도 1이 있으며 삼신산으로 설명된다(本中眞, 1994: 56). 평안전기의 신천원(神泉苑)에는 중도가 있고 차아원(嵯峨院)의 대택지(大澤池)에는 국도(菊島), 천신도(天神島), 정호석(庭湖石)이 있으며 삼신산으로 설명된다(鈴木久南 1997: 26) 외.

한국에 있어서 백제의 궁남지에는 방장선산의 기록(삼국사기)이 있으며 이것은 삼신산의 하나이다. 신라의 안압지에는 3섬이 있고 삼신산으로 유추할 수 있고, 용강동 원지에는 현재까지 발굴결과 2개의 섬이 드러났고 삼신산으로 설명되고 있다(千田 稔, 金子裕之, 2000: 137-8). 발해의 어화원 원지 연못에는 2개의 섬이 있으며 삼신산으로 추정된다.

호안과 치석의 경우 중국의 진, 한 시대부터 호안에 태호석을 사용하였으나 태호석은 고가이므로 흙을 주로 사용했고²⁾ 한시대에는 여러 장식품을 설치했다. 일본의

경우 비조 초기에는 적석을 했으나 점차 부석(敷石)이 나타나고 나라에는 주빈석부(洲濱石敷)가 보이고 특이하게 평안전기의 대택지(大澤池)에는 목주(木柱)시설을 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 고구려의 안압궁지에는 못 가와 안에 기묘한 바위를 드문드문 세웠는데 중국의 호안에서의 대호석 사용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백제의 전 부여박물관 앞 연지는 적석을 했고 정립사지는 토사방지 목주(木柱)를 설치했으며 이것은 일본의 평안시대 평등원 지(平等院池)와 대택지와 유사하며 영향관계로 볼 수 있다. 통일신라의 안압지에는 장대석과 자연괴석(自然塊石)을 사용한 발달된 치석기술을 보이는데, 이것은 고구려의 유민에 의한 발달된 축석 기술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신라의 용강동 원지의 자연석 활석 적석은 비조경적원지(飛鳥京跡園池)의 호안 석축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바다처리의 경우 중국 고대 원지는 상세히 발굴된 경우가 별로 없고 당의 원지는 바다를 다진 후 하란석(河卵石)을 깔았다. 비조의 못은 깊지 않고 얕으며 부석(敷石)을 했고 고구려, 백제의 못은 방수를 위해 진흙 다짐을 했다. 나라의 동원원지 이후는 바다에 치밀하게 돌을 깔은 지(池)로서 주빈석부(洲濱石敷)를 했고 통일신라의 안압지나 용강동원지에서는 진흙을 깔아 방수처리 한 후 그 위에 돌을 일부 깔았던 것으로 특히 용강동원지의 바다에 돌을 깔 상태가 비조경적원지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건물과 다리에 있어서 중국의 한, 당의 경우 호안과 섬은 다리로 연결되고 호안 쪽에는 각, 대, 전, 관, 정(閣, 臺, 殿, 觀, 亭) 등의 건물이 배치되며, 한국의 백제 궁남지에는 망해루(望海樓)의 기록이 있고 섬과 연결되는 다리 흔적이 없으며 안압지에는 임해전지의 기록이 있고 다리가 없다. 일본 나라의 동원원지와 통일신라의 용강동원지에는 다리가 있고 호안에 건물지가 있다.

입·배수에 있어서 중국의 수·당 시대 원지는 수원이 주변 강줄기에 연결되어 입수되고, 일본의 비조시대 원지는 현통(懸樋)과 석조물을 통하여 입수되며, 안압궁지와 백제의 못은 지하수를 이용했고 궁남지의 경우 원래 방죽이었으며, 안압지에는 3단계의 수구(水溝)와 3단계의 입수로가 있고 특히 2단의 석조는 최근 일본에서 발굴된 구형석(龜形石)과 고대 신앙면에서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독특한 배수구가 있으며, 이곳은 원래 습지였던 것이 드러났다. 평성경좌경삼조지방 원지는 목통암거(木桶暗渠)에 의해 입·배수되며 용강동 원지에는 물받이 시설이 있다.

식물, 금수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원지 변에는 버드나무, 대나무, 갈대, 진귀한 화목과 못 속의 연꽃 등 수초들이 자라고 진귀한 금수들이 서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식물유체와 화분분석의 결과, 그 당시 못 주변의 식물상을 추정할 수 있다.

2. 안압지 조영의 특성

안압지는 그 조영에 있어서 못 속에 한국의 자생적인 신선사상과 도교의 신선사상에 의해 삼신산을 조성하고 동쪽 호안에 무산십이봉의 선산을 조산했다. 기능에 있어서 호국을 위한 용왕제와 산신제를 지냈던 용왕신앙, 산신신앙과 천신신앙의 기능 이외에 궁궐의 유연소 역할을 하여 각종 연회가 베풀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안압지는 도교의 신선사상에 의한 삼신산 조성 및 월성인 정궁의 동쪽에 입지하고 궁궐의 유연소 기능을 했던 것 등 기본적으로 동북아 삼국 한, 중, 일의 고대 원지와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안압지의 형상과 입수조는 일본 나라의 동원원지와 형상 면에서 비조의 구형석과 고대 신앙 면에서 유사성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안압지에는 안압지의 미적 의식이 기초가 되고 감은사의 석축기법과 금당 기단 가구와 대담을 세운 정신에서 나타나고 경덕왕(景德王)대의 석굴암과 불국사에서 꽃을 피운 신라인의 독특한 미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시퀀스, 스케일과 비율에서 $\sqrt{\quad}$ 구형 분석과 동일 비율 구형 분석, 황금비 분할 등 독특하게 계획된 공간구성 기법이 표현되어 있는 미적 의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안압지는 호국의 염원과 제왕의 불로장생의 회귀와 신라인의 발달한 미적 감각이 표현된 독특한 신라의 대표적인 원지양식임을 규명할 수 있다.

V. 결론

이상의 고찰로써 고대 한국, 중국, 일본은 문화적 교섭이 활발했었고, 원에 부속된 궁에 많은 원지가 조성되었고 원지에는 공통적으로 도교의 신선사상에 의한

봉래, 방장, 영주의 삼신산을 조성하여 제왕의 불로장생을 희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은 공통적으로 입지에 있어서 많은 경우 복구후정의 특색을 보이고 있고, 원지는 그 기능에 있어서 궁중의 유연소로 사용되었다. 발굴결과 안압지는 형상에 있어서 방형 구역 내에서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룬 독특한 조형을 보이고 있다. 안압지에는 호국을 위해 용왕제를 지냈던 용 신앙과 산신신앙 등의 기능이 내포되어 있다. 안압지에 조성된 세 섬은 한국에서 자생했던 신선사상과 중국의 진 시대에 시작하여 한 시대에 완성된 완전한 형태의 봉래, 방장, 영주의 삼신산을 갖춘 신선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유추되며, 이 삼신산은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공간구성에 있어서 스케일과 비례, 공간구조, 연속적인 시계의 중심이 된다. 호안에는 발달된 치석기법을 보이고 있고, 바닥에 방수처리를 하고 수생식물 틀을 설치하여 식생을 제한하여 지(池) 공간을 넓게 보이게 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고, 대개의 경우 지(池) 중의 섬과 호안을 다리로 연결하고 있는데 안압지에는 다리가 설치되지 않아 더 넓은 공간감을 조성하고 있다. 안압지에는 독특한 6단계의 입수구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독특한 배수구가 있다. 안압지에는 독특한 환경을 조성하는 화목이 자라고 기이한 금수가 서식했던 기록이 있다.

따라서, 안압지는 동북아 삼국인 한, 중, 일 고대 원지와 공통된 사상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조영기법 상 유사성도 찾을 수 있지만 문화교섭이 자기화되어, 안압지의 미적 의식이 기초가 되고 감은사에서 나타나고 석굴암과 불국사에서 완성을 본 신라인의 독특한 미의식이 반영된 독특한 공간구성 수법과 조형요소를 갖추어서 독특한 위상을 나타내고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 원지라고 할 수 있다.

주 1. 이하 고대라 하고 원지에 관한 자료와 유적의 유무에 따라 편의상 중국의 경우 한(漢)시대 다음에 남북조(南北朝)가 빠지고 한국의 경우 삼국시대의 신라가 빠졌다.

주 2. 周維權 교수 고증

인용문헌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1997.12) '97 부여 궁남지 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회의자료.
- 권덕영(1995) 신라 견당사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동현(1976.10) 안압지 발굴에 관하여. 대한건축학회지 20권 72호.
- 김동현(1978) 유구의 조사. 안압지. 문화공보부 문화재연구소: 50-79.
- 김원용, 안휘준(1993) 한국 미술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경표(1996) 발해시대. 한국건축사. 서울: 기문당.
- 김부식, 이강래, 교감(1998) 삼국사기. 한길사.
- 노사신, 강희맹, 성임 외공편(1989) 신증동국여지승람. 서울: 명문당.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1978) 안압지.
- 박경자(1979) 통일신라시대 안압지의 조경양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논문.
- 박경자(2000) 한, 중, 일 고대 원지 비교연구. 한국정원학회지.
- 박경자(2000) 한, 중, 일 고대 원지 조성의 배경. 동양고전연구 제13집.
- 박경자(2001) 안압지 조영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경자(2001) 안압지 호안 건물지의 조망 경관구조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 부여문화재연구소(1995.7) 부여 궁남지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
- 안휘준(1996) 미술 교섭사 연구의 제 문제. 고구려미술의 대외교섭. 서울: 예경: 11.
- 이백규(1999) 경주 용강동 원지 유적. 發掘された飛鳥の苑池. 奈良縣立橿原考古學研究所.
- 하진호, 김재철(1999) 경주 용강동 원지유적 발굴조사. 고고학을 통해 본 가야. 한국고고학회.
- 한병삼(1982) 안압지 명칭에 대하여. 고고미술153: 40.
- 황림계 저, 방학봉 역(1992) 발해사 연구 3. 연변: 연변대학 발해사 연구실.
- 강태호(1999) 중국 낙양성의 공간구조 및 원림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통권 제30 호: 10-11.
- 박경자(1999.8) 중국 고대 원림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제27권 2호 통권 74호.
- 박한제(1999) 당대 장안과 호한 복합사회. 한국 동양사학회 동계 연토회: 2-3.
- 上田正昭(1990) 百濟와 飛鳥文化. 百濟研究 제21집.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 河上邦彦(1996) 東아시아의 都城과 苑池. 考古歷史學志 11.12 合輯: 13-14.
- 高瀬 要一(1995) 古代苑池의 立地와 形態.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5.
- 龜田 博(1998) 島庄遺跡庭園遺構. 發掘庭園資料.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17.
- 龜田 博(1999) 飛鳥京跡 苑池遺跡. 明日香風 72. 奈良: (財) 飛鳥保存財團: 21.
-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1980) 昭和五十四年度平城宮跡發掘調査概報.
-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1986) 平城京左京三條二坊六坪發掘

- 調査報告.
31.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1987) 平城京左京三條二坊宮跡庭園 復原整備報告.
 32.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1998) 平城京東院庭園.
 33. 奈良縣橿原考古學研究所(1999) 發掘された飛鳥の苑池.
 34. 奈良縣立橿原考古學研究所(1999.6) 飛鳥京跡苑池遺構 現場 説明會資料.
 35. 内田和伸(1999.10) 平城宮東院庭園の發掘調査と復元整備. 日本歴史. 吉川弘文館.
 36. 發掘庭園資料(1998)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37. 卜部行弘(1999) 飛鳥京跡苑池遺構の調査. 發掘された飛鳥の苑池. 奈良縣立?原考古學研究所: 1-2.
 38. 本中 眞(1994) 日本古代の庭園と景觀. 東京: 吉川弘文館.
 39. 牛川喜幸(1993) 古代庭園の研究. 京都大學學位論文.
 40. 酒船石遺跡 第12次調査(2000.2) 明日香村教育委員會.
 41. 秋山日出雄(1977) 飛鳥島庄の苑池遺構. 佛教藝術 109號.
 42. 平城京左京三條二坊宮跡庭園 復原整備報告(1985) 奈良市.
 43. 馬得志(1959. 6) 唐長安大明宮發掘簡報. 考古.
 44. 王仲殊(1984) 漢代考古學概說. 中華書局.
 45. 周維權(1999) 中國古典園林史(第二版)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46.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1959) 唐長安大明宮. 北京: 科學出版社出版.
 47.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洛陽唐城隊(1998) 洛陽唐東都上陽宮園林遺址發掘簡報. 考古 1998年 第2期: 135-136.

원고접수: 2001년 6월 12일

최종원고 접수: 2001년 7월 27일

2인 익명 심사필